

행 사 일 정

소장님 인사말

※ 사회 :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개 회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인사말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 격려사 :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 '눈물의 비디오' 방영

토론

- 주제발표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경제학박사)
- 발제 겸 토론
유선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치위원장, 법학박사)
현택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박사)
- 사례발표
김광겸 : 전 대우그룹 근무자 사례
이성근 : 전 평화은행 근무자 사례
조의행 : 사업부도 후 재기 성공사례
- 토론
- 연구소측 대응방안 발표
- 방청석 질의 답변
- 폐회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임태희입니다. 2007년 희망의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늦게나마 국민 여러분 을 한 해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연구소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꾸미기 위한 '재도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는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부도나고, 근로자들이 부득불 퇴직하면서 사회와 가정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경제위기는 4년여 만에 탈출했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이자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심화되었고, 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빈부 격차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이 최대 현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특히 구조조정 당하신 분들을 모시고 바람직한 해결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중도에 퇴직하신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님, 그리고 토론해주실 현택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유선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치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업부도후 재기에 성공하신 조의행 사장님, 전 평화은행에 근무하셨다 퇴직하신 이성근님, 대우그룹에 근무하셨다 퇴직한 김광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중도퇴직자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성공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먼저 금융기관 퇴출로 인해 퇴직한 금융인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일반 서민들을 위한 '사회책임연대은행'과 전·현직 금융인의 재취업 및 창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금융인적자원진흥원'(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인들간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전문 포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기업 근무경력자들로 해외수출개척단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고용훈련이 다방면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자체별로 직종별 맞춤형 재도전센터를 설립하고 원스톱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들에게 테크노실버단, 실버 인턴제, 웰빙 실버타운 조성 등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위기로 본의 아니게 중도퇴직하신 분들의 재도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 근본적인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 대안 모색과 더불어 개인적인 노력도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회의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견을 잘 청취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7년 1월 31일

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임 태 희

우리 경제의 재도전 과제: 일자리 창출 문제

허 찬 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I. 문제제기: 고용과 경제

□ 경제 전체로 보아 '사람이 많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

① 경제에 활력이 넘칠 때: 일할 사람이 많아 좋은 일

-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人力, 또는 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경제가 연평균 10% 대의 고성장을 지속하는 데는 13억의 인구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전망하는 연구들의 대부분은 인구 증가세 둔화를 중요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음

② 경제가 어려울 때: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 많아 부담되는 일

- 주어진 전체 소득에서 사람이 많아지면 이에 의식주비용 부담이 늘어남을 의미
- 과거 한국의 가족계획, 중국 1자녀 정책 등은 이런 관점을 배경으로 함
-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도 양육 및 교육비 부담증가를 반영하는 현상
- 각종 사회안전망 제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져 결과적으로 국민전체의 부담 증대로 이어짐

□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첫 번째 모습에서 두 번째로 변화

-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취업 상황이 매우 양호했음. 이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신규 구직자들의 취업난(이태백), 취업자들의 고용불안(사오정)이 심각한 상태임
- 대부분 가계의 경우 근로소득이 제일 큰 소득源이며 보유자산이 제한적이어서 실직, 실업 등은 쉽게 가계의 중산층 이탈을 초래

- 근래 복지관련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제도강화와 더불어 소득정책에 따른 공적부조 수요계층 증대도 중요하게 작용
- 그 동안 복지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한국의 자살율이 OECD국가 중 제일 높은데, 특히 40대 남성의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높다는 반증임

- 외환위기 이전에는 취업자 증가율이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을 상회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역전되었음

<표 2> 외환위기 전후 10년간 취업자 증가율 추이

	87~96년	97~2005년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2.0%	1.2%
취업자 증가율	3.0%	1.1%

II. 고용추세의 현황과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상황들은 고용측면에서 보면 매우 큰 충격

- <표 1>은 1997~ 2000년까지 연말 기준 취업자 수 및 증가율임
- 1998년 취업자 급감으로 2000년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수가 1997년 수준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4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 계층에서는 2000년에도 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 아울러 2003, 2005년 취업자 증가율이 1%를 하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고용상황이 정체되었음을 말해줌

- 전체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대 및 30대 실업자수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로 본 청년층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

- 최근 ('06년 10월) 20대 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3.6%)의 두 배
- 각 세대 취업자 절대수나 세대 연령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은 뚜렷이 악화

<표 3> 20대와 30대 취업자 감소

	1997년	2005년
전체취업자	21,214	22,856
20대 취업자	4,964	4,207
30대 취업자	6,396	6,122

<표 1> 외환위기 직후 취업자 증감 추세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9	2000
<전체>	20882	19599 (-6.1)	20673 (5.5)	21042 (1.8)
20 - 29세	4859	4288 (-11.8)	4447 (3.7)	4486 (0.9)
30 - 39세	6357	5983 (-5.9)	6133 (2.5)	6156 (0.4)
40 - 49세	4776	4681 (-2.0)	5087 (8.7)	5371 (5.6)
50 - 59세	2865	2696 (-5.9)	2845 (5.5)	2847 (0.1)
60세이상	1678	1632 (-2.7)	1758 (7.7)	1786 (1.6)

* 연말기준,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고용의 량과 더불어 고용의 質 악화
- 전체취업자중 자영업자 증가로 非임금 근로자 증가
- 임금 근로자중 상용근로자 비중 감소와 임시직, 일용직 비중 증가

□ 낮은 임금 근로자 비중과 높은 자영업자 비중¹⁾

- 국제비교를 통해서 보면 우리경제에서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피용자) 비중이 낮은 반면 자영업 및 가사 노동자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을 보임.
- 15년 가까이 경기침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의 피용자비율은 10%p나 낮음.

□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 악화

- 15세이상 인구 증가율의 둔화속도 보다 빠른 취업자증가율 하락

1) 참고: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비교대상 국가들의 소득이 우리와 비슷했던 과거 시점을 비교해도 우리의 피용자비율은 5%p 이상 낮음.

<표 4> 임금근로자비중

년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호주
1995	28.6	41.9	44.6	39.6	38.5
2000	28.4	42.2	47.9	39.6	40.3
2003	30.2	41.9	45.0	38.5	42.0

주: 임금근로자수/전체인구× 100, 자료: 통계청

<표 5> 자영업자비중의 국제비교(2002년)

전산업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독일	미국
피용자	65.1	83.7	71.6	86.2	88.9	92.8
고용주	7.4	2.7	5.2	3.5	5.1	7.1
자영업자	19.9	8.1	15.8	9.9	4.9	-
가족종사자	7.7	5.1	7.4	0.4	-	0.1

주: 미국과 영국의 자영업자는 고용주에 포함. 한국은 2003년기준
 자료: '2004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경제전체로 보아 피용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우선 임금근로자의 사적, 공적 부담비중이 크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당 임금근로자가 작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특징²⁾

- 자영업 종사자들은 지난 4년간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내수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내수부진의 피해를 제일 심각하게 겪고 있음
 - 2004년 총 서비스업 자영업주 4,495천명중 절반 이상이 대표적으로 부진을 경험하고 있는 도소매·숙박업에 종사
 - 같은 해 서비스업중 전체 무임금 가족종사자 878천명 가운데 677천명이 도소매·숙박업에 종사

2)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06-10,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금재호·윤미례·조준모·최강식, 2006 참조.

- 성별로 보면 남성들, 그리고 40대 이상 연령대 자영업 종사자들이 크게 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1996년 전체 근로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8%에서, 2004에는 29.7%로 높아짐.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32%에서 27.9%로 역전됨
 - 1996년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40대, 50~60대 자영업주수가 각각 1,567, 1,376, 1,002천 명에서 2004년에는 각각 1,295, 1,887, 1,541천 명으로 달라짐
- 이런 추세는 특히 남성 중장년층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가 제한적이거나 또는 기업에서 장기근속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

III.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경직화

□ 산업전반의 고용유발효과 저하

- 구조적 요인: 생산성 증가 등에 기인하여 사람을 덜 쓰는 추세
 - 취업유발계수, 즉 최종수요 10억원당 해당산업과 기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가 90년대 이후 하락추세 지속
 - 특히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의 절반에 지나지 않고 또한 하락 속도도 서비스업에 비해 빠름.

<표 6>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 위 : 명/10억원

	'90	'95	'2000	연평균 증감률(%)	
				'90~'95	'95~'2000
농 립 어 업	100.0	72.3	67.7	-6.3	-1.3
광 업	33.4	18.5	12.1	-11.1	-8.1
제 조 업	39.0	21.5	14.4	-11.2	-7.7
전 력가 스수 도	13.2	9.1	5.7	-7.2	-8.9
건 설 업	31.2	23.8	20.8	-5.3	-2.7
서 비 스 업	44.6	34.1	24.3	-5.2	-6.6
전 산 업	42.7	27.9	20.1	-8.2	-6.3

자료 : 한국은행

- 지난 2~3년간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취업계수가 낮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
- 경기적 요인 : 내수부진에 따른 서비스업의 낮은 성장세
 - 지난 2~3년간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은 수출호조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

□ 제조업의 비중감소와 제조업 사업장규모 감소

- 참여정부 들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종은 큰 호황을 누렸음. 하지만 그동안 제조업 고용이 줄고 오히려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고 있음
 - 2000년 429만 명에 달하던 제조업 취업자가 2006년 10월 현재 418만명으로 약 11만 명 감소
 - 이에 비해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는 2000년 1,460만 명에서 2006년 10월 현재 1,696만 명으로 약 270만 명 증가
- 제조업 고용감소 추세는 대형 사업장이 빠르게 줄어들어 것에 의해 주도
 - 90년대 초 이후 1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만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감소폭이 큼.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는 급여가 높다는 특징이 있음
- 수출관련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의 달러표시 임금 상승폭이 매우 높아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는 추가 이유 제공
 - 2002년 제조업 평균 임금이 190만원에서 2006년 8월 239만으로 32.7%증가. 동기간 내 원화는 달러대비 25% 절상. 따라서 동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 종사자 달러표시 임금은 57.7% 상승.

□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미흡과 편협한 개선노력

- 각종 국제비교에서 우리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각됨

- 세계은행이 2005년 발표한 '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은 155개 조사대상국 중 105위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올 5월 발표는 기업경영 분야에서 노사관계 부분 순위가 61위로 대상국 중 최하위
- 세계경제포럼(WEF)의 올 9월 발표는 노사협력관계 부분은 114위 하위권을 기록
- 고용상황의 전체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기간제 및 파견근로 부문에서 노동계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음

IV. 개선방안

가. 노동시장 관련

□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및 제도개선을 통한 재취업 시장 육성

-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비용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고용회피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됨
 - 각종 국제비교에서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이런 상황의 가시적 개선 없이는 고용 창출이 매우 제한적일 것
- 확일적으로 중장년층의 퇴출을 우선시하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방안임
 - 우선 이들은 청년층 보다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연령에 접근해 있어 누구보다도 각종 연금에 더 많은 각출을 해야 할 그룹임
 - 중장년층은 가계의 대표 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실직은 가계전체의 빈곤화로 이어져 복지수요를 크게 늘림
- 경제 전체로 보아서 많은 중장년 인력의 경력단절은 무형인적자본의 소멸을 의미하여 부정적이어서 재취업 시장 확대가 절실함
 - 이들의 근로기회 확충을 위해 임금 피크제도, 근무 직종 유연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이런 사항이 진정된 노사정 등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부분적 개선보다 일자리 총량 확장에 초점을 모아야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보호강화 등을 통해 기존 취업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하지만 OECD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호규제의 강도로 평가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높은 편이며 지난 5년 사이에 개선이 없음. 이에 비해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는 오히려 보호강도를 낮추는 조치가 있었음
- 일자리 다양성을 유지하고, 여성인력 취업기회 확대로 취업기회 확대와 가계소득 안정성 높여야
 - 비정규직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많아야 처지에 따라 노동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노동공급이 늘어날 수 있음
 - 인구고령화와 고용불안 확산 등으로 개별 가계의 안정성이 위협 받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확대가 불가피함. 이를 제고하기 위한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함
- 시장경제 중심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 보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대개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 가능한 기업부문의 일자리 늘리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경제적 가치창출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움

□ 성장이 있어야만 중산층 복원가능

- 중산층 붕괴조짐의 제일 큰 원인은 고용상황 악화에 기인한 바 복원이 유일한 방법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임
 - '실직에 따른 고용소득 고갈 →교육비 등 고비용부담 지속→금융저축 잠식 →중산층 이탈'의 악순환으로 그 동안 중산층 기반약화 지속
 - 도시가계 평균 월 소비지출과 非소비지출이 각각 2,16만원, 50.8만원, 개인 평균 금융자산이 약 3천만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이 없으면 3인 가족기준 약 3년 정도면 저축이 고갈됨. 중산층 이탈은 훨씬 이전에 발생 할 것임

- 이런 악순환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근로소득의 복원임
 -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위해서는 활발한 일자리 창출이 선결되어야 함.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없이 불가능
-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어야
 - 부동산 관련 중부세 대상자는 2005년 74천명에서 2006년 35만 명, 2007년 약 70만 명에 이를 전망
 -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인하 필요. 2005년 기준 연봉 3980만원 봉급생활자의 직, 간접 세부담 후 연소득은 3484만원으로 낮아짐
-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계층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노력을 경주해야 함

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방안

□ 내수회복을 통한 고용기반 확충

- 내수의 고용 유발효과가 수출보다 크기 때문에 고용개선을 위해서 내수 회복이 더 절실함
 - 특히 고용비중이 큰 서비스 부문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소비 회복이 결정적 요인
 - 최근 해외 소비지출이 커지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를 키우고 있음. 국내 서비스 산업 개선을 통해 이런 지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 고용창출은 기업의 설비 확장 등의 투자 증대가 있어야만 가능함. 고용부진이 심각한 만큼 투자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규제완화,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요한 투자확대 유인책이 될 것임. 최근 하이닉스 증설 불허는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큼

□ 물적 자본축적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 근래에 기술혁신을 통한 총생산성 증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물적 자본축적이 등한시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우 기술혁신은 새로운 투자와 연관되어 있음

- 크게 두 가지의 기술혁신이 있음
 - 첫 번째는 공정과정 개선과 같이 자본재와 무관한 순수한 기술혁신 (disembodied technological innovation)이고,
 - 두 번째는 속도가 빠른 새로운 컴퓨터와 같이 자본재에 내재(embodied technological innovation)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자본재에 대한 투자는 일부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 한국의 일본에 대한 높은 자본재 의존도가 지속되는 것은 단순 기계에 대한 수요라기보다 기계류가 내장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업 활력제고와 기업가정신의 고취

-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업가정신이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축소지향, 안정위주의 경영방식이 선호되는 분위기는 위협과 모험을 무릅쓰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였음
-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영권 불안 완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신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유도해야
 - 근래 주식시장 개방 및 활성화로 전략적 M&A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부각되었음. 이런 상황은 자연히 경영진으로 하여금 경영권 유지를 우선 고려하게 하고 신규투자에 소극적이 되게 만듦
 -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제고시켜주기 위해서도 이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차등 의결권 등의 도입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함
- 고질적인 노사관계 어려움의 해결은 기업환경 개선의 필수 사항
 - 국적이나 규모를 불문하고 한국내의 모든 기업들에게 노사문제는 최우선 경영애로 사항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 문제의 개선이 없이는 가시적 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외환위기로 구조조정된 실직자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구제 방안

유 선 기
(전국금융산업노조 정치위원장, 법학박사)

I. 들어가면서

금년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이른바 IMF사태가 발생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일부에서는 IMF사태는 완전히 극복되었고, 우리경제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환호하고 각종의 거시경제지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IMF사태는 진정으로 극복되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국민경제적 문제점은 없는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IMF는 우리정부에 긴급구제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재정·금융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 높은 콜금리 수준 등 지원조건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수락하여 외환시장과 물가안정을 위한 고금리 정책과 재정금융긴축은 물론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고용의 유연화 등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되었던 일자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수십만의 구조조정실직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1999년 국민의 정부가 민간소비를 부추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했던 신용카드활성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신용카드대란과 합쳐져, 가계부실을 초래하여 막대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의 심화와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른바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는 월지출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인구의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빈곤문제연구소등 연구기관에 따라 최대1천만 명까지도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SBS방송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 138만 명, 비수급대상자 372만 명, 차상위소득계층(최저생계비20%이내의 소득자) 206만 명으로 빈곤층을 7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 수도 계속 증가하여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하는 IMF사태를 원인으로 하는 직접적인 구조조

정 실직자의 통계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전체 신용불량자나 빈곤층 중에서 IMF사태로 인한 구조조정된 실직자의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된 실직자의 수를 중심으로 통계를 정리했으며, 여타 대기업 등에서 구조조정된 인원이 포함된 숫자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이나 비정규직 증가현황의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IMF사태로 인한 구조조정된 실직자의 대상과 범위 즉 구제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IMF 구조조정 실직자의 성격은 IMF 이전에는 개인적인 부채나 불성실 나태 등의 개인적 귀책사유로 인한 실직이나 실업의 원인이었지만 IMF 이후에는 개인적인 불성실과는 무관하게 IMF가 대한민국정부에 요구하여 합의한 경제회생 프로그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야기된 실업이다. 따라서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다고 환호하는 이 시절 즉 IMF사태 이후 1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실직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가족의 명예회복과 국가적, 사회적 의미의 특별한 구제정책과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IMF사태로 구조조정된 실직자들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II. IMF 10년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1. IMF 10년 우리 경제의 변화상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변했다. 원·달러환율, 주가지수, 외환보유고 등의 경제지표 추이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환율은 1997년 상반기, 1달러당 800원대였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합의된 뒤에는 1,964원 80전(1997년 12월24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06년 12월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주식시장은 1995년 1,00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피지수는 하락을 거듭하다 1998년 6월 280선으로 주저앉았다. 1년 반만에 1,000포인트로 다시 올라섰으나 1년 뒤에 반토막이 났다. 이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부터

1,000포인트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97년 10월말에 305억달러였으며, 이중 가용외환보유액은 225억 달러였고 IMF 구제금융합의 시점인 97년 12월4일에는 50억달러였으나 06년 11월말 현재 2,343억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부정적 지표도 함께 양산해냈다. 무엇보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상승이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을 뜻한다. 외환위기 당시 0.283에 머물던 지니계수는 06년 0.310으로 높아졌다.

그럼 외환위기 이후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이처럼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확산시켰으며 그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외환위기 원인

먼저 오늘날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확대 즉 사회양극화를 가져온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해법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수는 외환위기가 해외에서 과도하게 차입한 단기 투기자본을 장기 시설투자 와 증권투자에 투입한 결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면에는 이 나라 경제의 구조적 결함이 내재하고 있었다. 즉 그동안의 압축성장과 지나친 차입경영의 결과 금융과 기업부실이 드러나 대외신뢰도가 떨어졌고, 또 지나친 금융개방화로 위기 시 방어능력의 상실 등 복합적인 요소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는 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여 국제수지 악화를 예방하지 못했고, 그러던 중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표면화되고 국제금융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어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7월 기아그룹사태 그리고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쌍방울, 해태, 한라그룹, 고려증권, 동서증권 등 연쇄 부도사태로 이어지며 정경유착에 의한 과잉 증복투자와 과도한 부채경영과 수익성 하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총외채(외환보유고) 추이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 1> 총외채(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총외채	438	969	1,271	1,643	1,580
외환보유고	202	256	327	332	204

즉 당시 상황은 외채는 증가하고 외환보유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한 가운데 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대만, 홍콩(10월)을 거쳐 11월 한국으로 확산되며 원화절하와 주가 폭락을 가져왔다.

3. 외환위기 대처방안

1997년 12월 3일 IMF와 자금지원 관련 제 1차 협의를 통해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퇴출시키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합의하였다.

1997년 12월 24일 IMF와 제3차 협의를 통해 부실은행 및 부실증권사의 구조조정 일정제시 등 금융구조조정 계획을 가시화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에 이은 금융부문의 부실정리 및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그 규모는 2006년 11월말 현재 168.3조원에 달한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6).

재원별, 연도별 공적자금 현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재원별 공적자금 현황 ('97. 11월 ~ '06. 11월말, 단위 : 조원)

구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7.7	3.1	7.4	6.7	17.2	42.1
공공자금	13.5	-	-	6.3	-	19.9
기타자금 ^{주)}	0.03	0.2	2.9	0.1	1.1	4.3
계	63.5	18.5	30.3	17.3	38.8	168.3

주) 예보·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표 3> 연도별 공적자금 현황 ('97. 11월 ~ '06. 11월말, 단위 : 조원)

연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1/4	-	0.35	△0.05	-	0.31
	2/4	-	0.02	-	-	0.02
	3/4	-	0.3	△0.05	-	0.25
	4/4	-	△0.19	-	-	△0.19
	계	-	0.48	△0.1	-	0.38
누계	102.1	42.1	19.9	4.3	168.3	

<표 4> 공적자금 회수현황 ('97. 11월 ~ '06. 11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수 방법						소계
	출자금 회수	과산배당 등	자산매각 등	-			
예금보험공사	13.0	16.7	5.5	-			35.3
자산관리공사	국제입찰	ABS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계
	1.6	5.0	2.1	12.4	5.6	10.3	37.0
정부	출자금 회수	후순위채권 회수	-			소계	
	1.7	6.6	-			8.3	
계							80.6

공적자금의 회수현황은 예금보험공사 35.3조원, 자산관리공사 37.0조원 그리고 정부 8.3조원으로 총 83조원이 회수되었다(표 4참조).

4. 금융구조조정 현황

이와 같은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의 결과 1997년 말 2,103개에 달하던 금융기관의 수가 2006년 11월말 현재 1,318개로 감소하였다.

종급사의 93.3%가 정리되었으며 저축은행이 55.4%, 리스사 44%, 보험사 32% 등이 정리되었고 은행도 1997년 말 33개중 15개가 구조조정되어 45.5%가 정리되었다.

이처럼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인력 감축 등으로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굿모닝증권+신한증권=굿모닝신한증권, 동부증권+갯마을증권=동부증권, LG투자증권+우리증권=우리투자증권('05.3.31), 동원증권+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05.6.1)동양종합금융증권 + 동양오리문투자증권 = 동양종합금융증권('05.10.1)
- 6) 서울보증(대한+한국), 현대생명(현대+조선), 금호생명(금호+동아), 동양생명(동양+태평양), SK생명(SK+국민+한덕)
 - 7) '01.12월 매각된 대한화재, '02.2월 매각된 국제화재 및 '02.12월 매각된 대한생명 제외
 - 8) 舊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운용사 13개사 포함, 경영기관 제외, 대비하-나인프라이드운용신설('06.8월)
 - 9) 계약이전 29개사 포함
 - 10) 한빛리스(한일리스+상은리스), 한국캐피탈(한국캐피탈+경남리스)
 - 11) 산은캐피탈을 포함한 수치임

<표 5>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06. 11월말 현재, 단위 : 개, %)

금융권별	'97년말 총기관수 (A)	구조조정 현황					신설등	현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 등	계 (B)	비중 (B/A)		
은행	33	5	11 ^{D)}	-	16	48.5	1	18 ²⁾
비은행	2,070	164	180	536	880	42.5	110	1,300
종금	30	22 ³⁾	7 ⁴⁾	-	29	96.7	1	2
증권	36	5	7 ⁵⁾	3	15	41.7	19	40
보험	50	10	6 ⁶⁾	4	20 ⁷⁾	40.0	21	51
투신	32	7	6	-	13	40.6	30 ⁸⁾	49
상호저축 은행	231	107 ⁹⁾	28	1	136	58.9	15	110
신용협동 조합	1,666	2	124	527	653	39.2	15	1,028
리스	25	11	2 ¹⁰⁾	1	14	56.0	9	20 ¹¹⁾
합 계	2,103	169	191	536	896	42.6	111	1,318

- 주 1) 하나[하나+보람]+서울], 조흥(조흥+충북+강원), 농협(농협+축협), 우리[한빛(상업+한일)+평화], 신설 국민[국민(국민+장기신용)+주택], 신한(신한+조선)
- 2) 우리금융지주회사 편입 3개은행(우리,경남,광주) 신한금융지주회사 편입 3개은행(신한,제주,조흥) 감안 시 15개
- 3) 16개사는 한아름금고로 계약이전+인가취소, 2개사는 인가취소, 4개사는 계약이전
- 4) 현대종금+강원은행('99.2), 한외종금+외환은행('99.1), LG종금+LG증권('99.11), 현대물산종금+동양종금('01.3), 리젠트종금+동양현대종금('01.6), 동양증권+동양현대종금('01.11), 우리은행+우리종금('03.7.)
- 5) 삼성증권+삼성투신증권, 리젠트증권+일은증권=브릿지증권,

5. 금융구조조정 결과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축소 등으로 BIS비율 및 자산건전성이 제고되었고 경영성과도 개선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의 연쇄부도와 1999년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도입 및 대우계열의 Work-out 등으로 1999년 말 13.6%에 달하던 일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공적자금 투입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2000년 말 8.9%, 2001년 말 3.3%로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출자 등을 통해 일반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 7.0%에서 2001년 말 10.7%로 높아지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호전되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향상되어 일반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이 1998년 말의 -3.25 %에서 2000년 말에는 -0.57%로 개선되었고 자기자본수익률(ROE)도 -52.53%에서 -11.90%로 개선되었다.

<표 6> 외환위기 이후 2001년까지 일반은행의 발전현황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2001말
회사수(개)	26	20	17	17	15
일인당자산(억원)	53.2	74.7	75.2	82.3	93.8
부실채권비율	-	7.4	13.6	8.9	3.3
BIS 비율	7.0	8.2	10.8	10.5	10.7
ROA	-0.93	-3.25	-1.31	-0.57	0.76
ROE	-14.18	-52.53	-23.13	-11.90	15.88

자료 :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산업 발전의 현황 및 특징", 2002.3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1

6. 대우 및 현대사태 등 대기업의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우그룹의 워크아웃결정과 현대사태 등으로 시작된 기업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30대 재벌 그룹 가운데 16개 그룹이 몰락했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국가부도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속에 그들의 고통은 묻혔고 그로 인한 실직자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III. IMF 구조조정 희생자의 현황

지난 30여 년 동안의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를 보면 눈부신 경제 성장에 힘입어 실업률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활발하게 늘려 왔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는 2.0%라는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의 상황이 좋았으며 외국에서는 한국노동시장을 부러워했다.

<표 7> 우리나라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 도	1970	1980	1990	1995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실업률	4.4	5.2	2.4	2.1	2.0	7.0	4.1	3.8	3.1	3.4
OECD 기준 실업률	-	-	-	-	-	7.5	4.4	4.0	3.3	3.6

주: OECD 기준 실업률은 1998년부터 조사 시작

이런 노동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IMF 경제위기이다. 경제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1998년에는 실업률이 7.0%까지 치솟아 실업대란을 야기했다. 이후 실업률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실업률은 1990년대 중반과 같은 낮은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표 8> 고용보험 이직사유별 상실자 분포의 추이(1995년 하반기 ~ 2004년) (단위 : 명, %)

	전체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1995 하반기	591,270	(100.0)	575,586	(97.3)	15,684	(2.7)
1996	1,401,415	(100.0)	1,287,538	(91.9)	113,877	(8.1)
1997	1,392,542	(100.0)	1,225,047	(88.0)	167,495	(12.0)
1998	1,983,688	(100.0)	1,317,973	(66.4)	665,715	(33.6)
1999	2,499,662	(100.0)	1,775,820	(71.0)	723,842	(29.0)
2000	2,981,558	(100.0)	2,235,138	(75.0)	746,420	(25.0)
2001	3,234,745	(100.0)	2,328,339	(72.0)	906,406	(28.0)
2002	3,404,669	(100.0)	2,564,066	(75.3)	840,603	(24.7)
2003	3,394,502	(100.0)	2,386,593	(70.3)	1,007,909	(29.7)
2004	3,364,005	(100.0)	2,213,155	(65.8)	1,150,850	(34.2)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또한 <표 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발적 이직자(실직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 시행초기인 1996년에 97.3%였던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은 1997년 91.9%를 거쳐서 1998년에 66.4%로 크게 하락하였다. 즉 1998년 이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직(실직)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이직(실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현황을 보면 도산폐업으로 인한 이직자(실직자)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1998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특히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1997년 말 304,418명에 달하던 금융기관 총 인력은 2001년 9월말 현재 31.4%인 95,674명이 줄어든 208,744명으로 감축되었으며, 1997년 말 28,324개에 달하던 금융기관 점포수는 2001년 9월말 현재 39.1%인 11,073개가 줄어든 17,251개로 감축되었다(표 10 참조).

<표 9> 고용보험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도산·폐업	고용조정 (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기타
1996	8,859	2,424	1,393	3,847	1,195	1,274
1997	51,017	14,090	5,895	16,157	5,539	9,336
1998	438,465	62,338	80,810	219,959	11,196	64,162
1999	327,954	24,254	50,428	170,553	17,263	65,456
2000	260,574	27,302	19,079	140,113	8,844	34,670
2001	349,148	33,358	20,178	213,641	9,685	37,621
2002	299,215	26,529	13,167	194,988	9,319	32,216
2003	379,600	34,314	19,994	250,610	10,067	38,375
2004	471,542	38,572	29,169	304,174	11,644	56,146
2005	565,753	38,739	32,397	342,889	13,659	79,203

자료 : 고용보험백서(2006)

결국 IMF 이후 외적 강제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과거 실업의 원인은 구조적인 원인의 결과이기 보다는 개인적인 불성실의 문제로 다루어 질 수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실업은 아무리 성실히 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해 갈 수 없었던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실업으로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또한 노사정의 합의기준과 정부(노동부)의 산출 방식(경활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2006.8월 현재 비정규직은 약 546만 명(35.5%)에 달한다³⁾.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도 IMF에 기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정부는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노동정책의 제1의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IMF 이후 핵심 노동자층은 유지하되 전통적인 내부노동시장 외곽에 더 많은 노동자를 배치함

3)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6)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활인구 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여 2006.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가 약 845만명(55.0%)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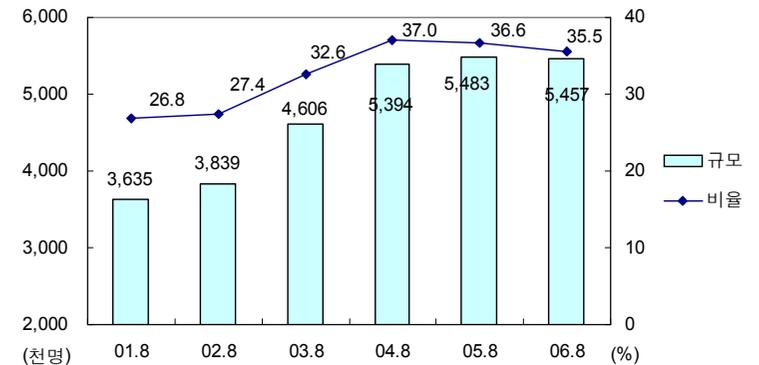
으로써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가 비정규직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표 10>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기관 인력 및 점포현황 변화

금융권역	인 원 수			점 포 수		
	'97년말 (A)	'01.9월말 (B)	증감(B-A) (비율)	'97년말 (A)	'01.9월말 (B)	증감(B-A) (비율)
은행	144,121	91,091	△53,030 (△36.8%)	7,847	6,186	△1,661 (△21.2%)
보험	83,152	52,506	△30,646 (△36.9%)	16,916	7,713	△9,203 (△54.4%)
증권투신	33,461	35,534	2,073 (6.2%)	1,480	1,821	341 (23.0%)
총금	3,587	587	△3,000 (△83.6%)	74	21	△53 (△71.6%)
금고	9,975	5,421	△4,554 (△45.7%)	341	236	△105 (△30.8%)
신협	30,122	23,605	△6,517 (△21.6%)	1,666	1,274	△392 (△23.5%)
합계	304,418	208,744	△95,674 (△31.4%)	28,324	17,251	△11,073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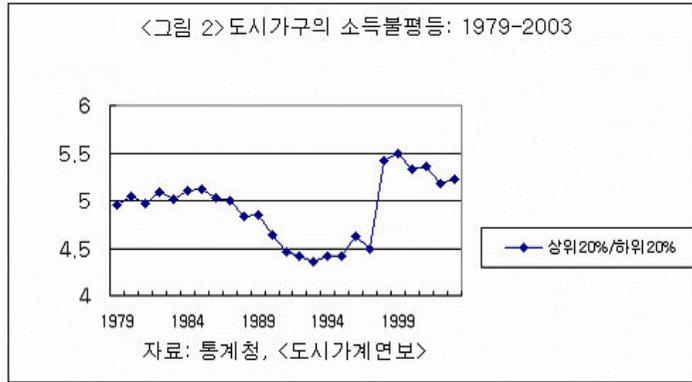
자료 : 감사원,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보고”, 2001. 11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및 추이



이처럼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은 결국 도시가구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다가

1997년 이후 다시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⁴⁾(그림 2참조), 신용불량자가 <표 11>처럼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 IMF 이후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표 11> 신용불량자 증가현황 (단위 : 만명)

구분	98년 말	99년 말	00년 말	01년 말	02년 말	03년 말	04년 3월말
인원	193	199	208	245	263	372	392

IV. IMF 구조조정 실직자 구제 방안

1. IMF 구조조정 실직자의 성격

IMF 프로그램의 핵심인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약 168조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하면서 그 조건의 핵심내용은 부실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이른바 물적/인적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인적 구조조정의 결과가 바로 IMF 구조조정 실직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로 인해 외환위기는 극복되었고 금융기업 구조조정으로 공적자금의 특혜를 받고 막대한 흑자를 내는 등 성과를 확보하였다.

4) 소득 수준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에 대한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의 비율은 1995년 4.42에서 2003년 5.22로 상승했다.

따라서 IMF 프로그램상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그에 대한 별도의 특별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예컨대 여기에 해당되는 재고용이나 실직에 대한 희생 프로그램 등 국가적, 사회적 특별한 구제대책이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확대정책을 통한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버블 문제를 통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실직자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결국 IMF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나 IMF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야기된 문제가 아니고 IMF 극복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IMF 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기업을 희생한 것처럼 이들 IMF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문제 등을 포함하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도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2. 기존 구제대책

IMF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신용불량자나 빈곤층의 일반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왔다.

- (1) 실직자에 대한 재고용을 위한 취업교육,
- (2) 신용불량자에 대한 배드뱅크 1(한마음금융: 다중채무신용불량자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유도, 대상자 184만명 약30조대상이나, 약 2조정도 실행),
- (3) 배드뱅크2(희망모아 신용회복지원업무, 공동추심 및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 (4)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업무를 통하여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04.12월 말 현재 15,5만명)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고, 기타 정상채무자는 약126.5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 (5)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 확대, 빈민층 지원 프로그램 등

이는 일반적인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 이들 IMF 구조조정 으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물론 5개 퇴출 은행직원에 대한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조치 등의 노력은 있었다.

3. 향후 대책

IMF 구조조정 실직자의 구제방안은 크게 실직자의 명예회복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적 차원의 구제방안과 실직자의 경제적 회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적(경제적) 차원의 구제방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IMF 구조조정 실직자 구제 특별위원회(가칭) 등 설치

IMF 구조조정 실직자의 상시적 지원과 구제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부문 (노사정과 다른형태로)이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직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생활이나 근로가 가능한 지 여부를 따라 등급을 분류한 후에, 직장이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직업교육과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 이들 실직자를 취업할 경우 세제 등의 특별혜택이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생산적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기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IMF 구조조정 실직자의 경제적 회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대안은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 강구 : 과거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기초수급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형식적인 의미의 지원 보다는 실질적으로 IMF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회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제 시스템을 마련

(3) 사회적 차원의 구제방안

IMF 구조조정 실직자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조직(사회연대연행, 신나는조합, 사회복지은행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문제를 공동 해결하도록 노력.

V. 결 론

사회양극화 문제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끊고, 향후 국가경제를 파산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400만 신용불자를 포함해서 이른바 1,000만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급성이 IMF 구조조정 실직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MF사태가 10년 되는 이 시점에서 근 10년 동안 실직으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와 그 가족의 고통으로 인한 가정피괴와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감안하여 특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우그룹의 해체와 시사점

김광겸

저는 87년 대우에 입사하여 99년 구조조정과 함께 퇴사하여 빚만을 남기기는 하였지만 조그맣게 저의 일도 해보고, 대우의 참모습과 함께했던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개설한 대우사랑사이트의 운영자 김광겸 입니다.

먼저 쌓였던 울분을 표출케 하고 이론이 아닌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발의 뜻 깊은 발상을 하신 한나라당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있게 만든 IMF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우리네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10년 전의 악몽!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매일같이 환율이 오르고, 기업 부도소식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많은 서민들..

당시 모든 잘못은 금융권과 기업이 원인이라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흑자는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원인은 바르게 규명되고 그 처방이 최선의 방법이였을까요? 이로 인해서 어느 순간 반 기업 정서가 생기고 경제에 활력은 잃어갔습니다. **슬기로운 극복 후에는 우리 선배가 30년간 이뤄놓은 알짜기업과 은행의 주인을 십년 만에 외국계가 차지**가 되었고, 폴란드에 파견 나가 우리 대우인과 한국인을 위한 공항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함을 알려주고 자랑하던 선배는 보험설계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극복의 결실인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패는 하였지만 지난날 제가 느꼈던 일들과 이랬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하였던 것과 대우사랑을 운영하며 만난 이들로부터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99년 회사의 구조조정의 일환인 희망퇴직을 실시하기에 젊음의 폐기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마음도 강하였으며 대우의 정신인 “창조, 도전, 희생”에 세워져서인지 미지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실업자교육으로 웹 과정을 수료하고 인터넷 사이트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초기 개발비가 많이 들기에 당시 서울에서는 한창 잘된다고 하기에 대전도 같지 않을까라는 짧은 소견으로 대전에서 의류상가에 의류매장을 함께 시작 하였습니다.

그나마 인터넷을 다루고 해서 창업지원관련 정보를 찾아 매장을 임대 계약 후 지원 센터를 찾았으나 임대주 회사는 지원불가 대상이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 장비구입도 요건과 절차에 대해 몰랐기에 사무실 임대 지원 이외에는 받지를 못 하였습니다.

휴일도 없이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일주일에 두 세 번 은 심야에 운영되는 동대문 도매 상가를 오르내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 보았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 물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매출은 바닥이고 수익은 올리지 못하면서도,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는 계속적으로 초기자금에서 지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금의 부족으로 우선 의류 쪽은 접기로 마음먹고 정리를 하였지만 법에 대한 무지로 임대보증금까지도 받지를 못하고, 악재는 함께 온다고 하였던가요? 그 시점에서 카드 대란으로 불리던 카드사의 한도는 줄고, 대출한도조차 줄어들며 목을 죄어왔습니다.

끝내는 모든 것은 빚으로 남고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모든 빚보다도 나의 꿈을 위해 고생해준 직원들의 월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챙겨주려 했던 것 때문인지 그들과는 다음에 다시 해보자는 말로 웃으면서 헤어지고 모두 지금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시점에서는 남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하였지만 정말 자살을 왜 생각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최저생계와 의료보장이라는 4대 사회보험은 참으로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그동안 제가 연금을 납입해왔고 그 금액이 상당액이건만 다른 보험처럼 해약이 되어 자금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체납으로 연체자가 되어 독촉장으로 압박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빚은 갚기도 빠듯한데 나 자신을 위한 보험료를 내는 것은 배부른 소리이지만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연체한다는 독촉장과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정말이지 대우라는 울타리를 떠나 사회에 나와서야 제가 얼마나 온실에서 지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기능을 갖지 못한 사무직으로 특정 업무에 한정된 지식**으로 부딪치는 현실은 저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하였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無知)의 상태에서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창업자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관련기관을 찾아 다녔으나 매번 그 절차와 기회를 놓쳐 사후약방문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접은 후이나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되죠. 재기는커녕 그 동안 쌓인 빚을 갚아나가기에도 힘겨운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집부터 사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고 이후 부동산은 올라 제가 판단을 잘못된 것이죠.

먼저 창업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이 한곳에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받도록 하고, 그가 어떤 직종에 **적성이 맞는지를** 검사해주고 조언을 해주며 해당 직종에 **적합한 각종 정보(업종, 위치, 사례체험 등)와 지원(시장조사 등)**을 제공해 준다면

모두가 성공을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지원을 받아 **성공한 이들과 실패한 이들을 면접 또는 관련 지식에 해박한 이들을 선별하여 컨설팅에** 활용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래 기업도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부서 또한 성공가능성이 높으면 그 직원들부터 퇴직 하고 창업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지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기존 퇴직자들 중 실패는 하였지만 **창업과 운영을 실행해본 이들을 다시 받아들여 운영**을 한다면 그에게는 다시 재기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소기의 목적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받은바 있는 실직자 교육도 **특정 기능습득(예를 들어 웹, 요리사, 기능사 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단일 기능보**

다는 그 기능화 함께 창업과 관련된 통합 실무교육(창업에서 운영에 관련된 제반[지원, 등기, 세무 등]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대우의 참모습이 무엇이나고 대우는 한국에 환란(IMF)을 맞게 한 주범이고 한국경제에 악영향만을 주지 않았느냐고. 뭐가 좋아서 대우사랑이냐고.

물론 대우가 잘못된 부분도 많고 투명하고 탄탄한 내실만으로 채워진 기업이었다면 어떠한 외풍에도 꺾기지 않게 해체되는 비운도 맞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경제를 선진국에 반열에 올려놓을 세계경영의 나래를 접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못하였기에 어찌되었든 한국경제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죄하며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묘하게도 **대우의 30년의 성장은 한국경제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였고 그간 대우가 **한국 총수출의 10%이상**을 담당했었던 부분과 정부보다도 먼저 미수교 국가에 진출하여 개척하고 수교를 맺도록 한 점이나 지금 대우인터내셔널이 자원기업으로 이름을 떨칠 이전에는, 그 이전에 이의 중요도를 간과하고 진출한 과거 김희장님 시절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해체 당시 대우는 어떠한 투자가 이뤄져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였지만 지금 견제하게 다시금 알짜기업으로 되살아 난 것을 보면 당시 판단이 얼마나 부당하다는 반론이 아닐까싶고, 당시 대우에 대한 평가와 전혀 다른 결과라면 대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우가 해체된 99년 말 각종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대우에 대해 국제사기니 뭐니 하는 너무나 일방적 부정적 평가는 제가 대우에 재직하며 직접 겪고 보아온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었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대우의 지난 30년의 모습을 알려 **일방적인 매도만이 아닌 제가 올린 내용들도 함께 보고 공과에 대해서 올곧은 평가**와 우리 대우인들이 그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우에 재직하던 시절보다도 더 많이 대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우사랑 사이트를 개설하고 많은 대우인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대우인들 중에는 회장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우정신이 “창조, 도전, 희생”이었는데 회장님은 항시 **우리는 대아(大我) 즉 보다 잘사는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는 희생해야 하는 세대라 강조하셨는데 희생의 대가가 이것(해체)**이라는 것이었으며, 대우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는 상품은 품질로서가 아닌 대우라는 이름만으로 저평가되어 고객의 외면을 받고, 주변인들의 웬지 모를 따가운 눈총. 정든 직장을 떠나 는 동료들 가슴속으로 울면서 떠나보내는 아픔.

그리고 이어지는 생활고는 삶을 짓눌렀기 때문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남은 대우인들도 채권단의 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사에 밀리거나 새로운 기업에 인수되어 때 늦게 새로운 기업문화에 적응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악순환은 지금까지도 남은 대우인들조차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우 해체로 대우가 아니라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셀러리맨의 신화로 도전하고 열정을 쏟으면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희망”과 대우가 전 세계에 구축한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대우와 김회장님의 인생역정은 도전과 열정으로 청소년들에게 심어 준 **“희망”**을 심어주었는데 이것이 무너졌기에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좁은 이 땅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세계를 무대로 수출애국을 외치며 온갖 역경을 헤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의 붕괴는 어떠하며 그 국가들이 지금은 한창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기업들이 다시 진출하며 대우가 이뤄놓은 것들로 인해 고맙게 여긴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러한데 그 네트워크를 살렸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 기미를 보인다면 그 부실한 부분에 대해 보강공사를 해주면 될 것을 무너트리고 다시 그만큼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시금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상식인데 당시에 대우를 해체가 아닌 부실한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뛰게 하였다면 지금 어떠했을까 합니다.

세간에서는 대우는 당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체험한 바로는 당시 타사들은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지만, 대우가 실시한 것은 인원이 아닌 비용절감과 급여 10% 줄이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닥친 어려움을 동료를 내보내기 보다는 줄여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극복해 나가는데 대우인들이 동감을 하였던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의 인원을 줄이는 것과 10%를 절감하고 모두가 함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회장님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대우재직시보다도 대우사랑을 운영하면서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한 대우패망비사의 부록으로 첨부된 당시회의 자료를 보면 어려움에 극에 달한 시점에서도 김회장님은 **인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비용절감을 강조하시고 이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대기업에서만큼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기업인의 책임**이라 강조하시며 인적구조조정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 들은 바로는 **회장님의 꿈은 “대우가 아닌 대한민국이 100년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은 말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된 거점에 특명을 내려 향후 그 나라에서 **성장할 사업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추진**하였고, 지금 발견 되어 개발 중인 가스 유전도 이중 하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우의 해체로 사장(死藏)된 것도 많다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대우는 국내보다는 **해외무역에 더욱 강한 기업**이었고 **그 구성원이었으며, 진출한 국가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적 물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영어(囹圄)의 몸으로, 실패한 기업인으로, 경륜을 묻히게 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재기의 기회를 주고, 이들로 하여금 꿈을 가진 이들에게 **자문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국익을 위하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우의 30년에 대해서도 그 진행과정을 되돌아보고 재평가를 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실패한 경험과 우리 대우, 그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실패한 경영자라 할지라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비전이 보이면 금융권에서도 그 자체만으로도 대출을 해주거나 실패한 그 자체보다는 그 능력을 우선시 하며 실패한 경험일지라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재기를 돕는다고 해서 면죄부를 준다거나 특혜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재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이들에게 그 계획과 구상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이를 검증 후에 지원한다면 실패로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사장(死藏)되지 않고 살아나 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퇴자는 의인이다.

이성근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까지 정년퇴직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었어도 명예퇴직이라는 용어는 매우 생경하였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정년퇴직이란 용어보다 명예퇴직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회자되면서 대다수의 봉급생활자들을 주눅들게 하는 용어가 되었다. 특히 IMF 이후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명예퇴직의 미명하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함으로써 그 뉘앙스와는 달리 정리해고에 의한 강제퇴직의 의미로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명예퇴직자(줄여서 “명퇴자”)라는 용어 역시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정리해고되어 강제퇴직 당한 자를 일컫는 용어로, “다니던 기업에서 정리해고된 인생의 낙오자”라는 낙인과 함께 멸시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엄연한 현실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된 대부분의 명퇴자들은 위정자들의 국가경영 실패와 부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의 기업경영 실패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 및 해당기업 부도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祭壇의 제물로써 받쳐졌고 미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전혀 시간적, 물질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참으로 황당하게 희생되어졌다.

그런데 지난 10여년 간 이렇게 희생되어진 수많은 명퇴자들이 있었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국가부도 위기가 극복되고, 수많은 기업이 회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은 물론, 명퇴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현재 고액연봉을 받으며 여유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 정권과 그 정권을 계승한 현 정권의 그 어느 누구

도 지금껏 IMF 외환위기 이후 황당하게 희생된 명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는 물론 따뜻한 위로의 립서비스조차 없었다.

어디 그 뿐인가!

DJ 정권과 현 정권은 IMF 외환위기 졸업이 오로지 자기들의 주술과 능력에 힘입은 것 인양 여기면서 외환위기 졸업의 과실을 영똥한 곳에다 퍼다주는 등 난리법석을 떨고 있으며 또한 명퇴자들의 희생으로 목숨을 부지한 자들은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상상키 어려운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란다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쟁의와 투쟁을 일삼고 있다.

명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견강부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명퇴자들은 의인이다.

명퇴자들의 희생으로 국가부도 위기가 극복되고 기업회생이 가능하였으며 명퇴당하지 아니하고 용케도 살아남은 자들은 그 과실을 고스란히 독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명퇴자들을 의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인가.

의인이라 함은 국가나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일컫는진대, 명퇴자들은 의인임에 틀림없고 그러하기에 의인에게 합당한 최소한의 정책적 보호와 배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자발적 명퇴보다 강제적 명퇴를 강요했던 DJ 정권과 이를 계승하였다고 자처하는 현 정권의 10여년에 이르는 통치기간 동안 그들은 명퇴자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한때 중산층에 속했던 명퇴자들이 직장을 잃고 빈곤 계층으로 전락함에 따라 개인적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거시경제적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어졌고 이에 따라 국가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유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지독한 생활고를 못 이겨 세상을 등지는 동반자살 가정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아닌 밤중에 흉두께 마냥 느닷없이 직장에서 쫓겨나서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명퇴자들의 애환이 뉴스에 오르내리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귀막고 눈감고 나몰라라 여기는 함량미달 정권들이 참으로 가증스럽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YS가 밋다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한답시고 명퇴자들의 희생을 강제하고도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한 DJ가 더 얄밟고, 또 현실로 나타난 명퇴자 문제는 모두 前 정권으로부터 촉발된 것으로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책임회피성 오리발 정권은 더더욱 꼴보기 싫은 것을 나는 구태여 숨기고 싶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양극화 문제의 단초는 DJ와 MH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황당하지만 기꺼이 희생된 명퇴자 등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배려를 하지 않았던 아주 심각하고도 중대한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DJ와 MH의 아주 심각하고도 중대한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양극화 문제는 이제 만성적이며 고질병적인 사회문제로 전이되어 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희생된 수많은 명퇴자들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명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화급히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너무나 영똥하게도 지금 북한에 대해 쌀과 비료와 전력을 공급하고 엄청난 금액의 금강산 관광 대가를 지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하에서는 이의 해결방안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다. DJ가 그랬듯이 MH의 관심사 역시 동일

업원의 국민소원을 정치적으로 교묘히 이용하여 정권연장과 자신들의 영달만을 누리는데 있지, 결코 중산층에서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명퇴자 등을 위시한 우리 사회의 저소득 빈곤계층의 소득향상 등 삶의 질 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DJ와 마찬가지로 MH 역시 입만 열면 “성장과 분배” 운운하면서 서민대중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서민대중의 삶은 그 전보다 훨씬 못해진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말로만 성장하겠다고 였지 제대로 성장을 이루기를 하였는가, 또 되레 성장보다 분배만을 강조한 나머지 엄청난 세금을 거두었으되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제대로 된 분배를 하기라도 하였는가?

성장과 분배는 커녕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엉망인 채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북한 퍼주기에만 골몰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일삼는 현실은 DJ와 MH의 가증스런 구두선이요 대국민 사기극임에 다름 아니다.

지금껏 명퇴자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밀동부터 서서히 병들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여태껏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DJ와 MH 정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들 그것은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일 것이다. 해결의지도 없고 해결능력조차 없는 기대절망의 정권이기에 그렇다.

이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서 이러한 심각하고도 중차대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다시는 DJ와 MH 정권과 같은 선무당 정권이 들어서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건국되고 지켜 온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토론회를 마련하고 정책입안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한나라당과 소속 여의도 연구소의 의도와 의지에 충심으로 신뢰를 보내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

이제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여 보기로 하겠다.

나는 불행하게도 뉴-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0년 11월 30일에 명퇴라는 철퇴를 느닷없이 맞고 말았다. 정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였고 그러하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철퇴를 맞은 나로서는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지의 힘이 모두 빠지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생각만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아내와 자식들의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과 실망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 사실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었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철퇴를 맞고도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양 집을 나서곤 하였다.

하지만 백수가 이른 아침에 갈 데라고는 없었고 오라는 데는 더욱이 없었다. 흔히들 백수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고들 하지만 당시 나같은 백수 새내기에게는 그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백수 고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었다. 말쑥한 정장차림으로 무작정 전철을 타기도 하고 시내버스에 몸을 싣기도 하면서 수도권의 동서남북을 수 없이 교차왕복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 전철이나 시내버스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나 표정에서도, 그들이 이미 나의 사정이 어떠한을 훤히 꿰뚫고 동정과 조롱을 뒤섞어 발산하는 것으로 체감되어졌다. 아무리 태연한 척 굴어도 그럴수록 더욱 자세는 부자연스러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림을 숨길 수 없었다. 참으로 하는 일없이 바깥에서 10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명퇴라는 철퇴를 맞은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집을 나서서 10시간을 넘게 지내다 돌아오는 일 또한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설 줄이야!

그러하기를 일주일, 도저히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혼자만의 고통으로 지내기에 너무 힘들었고 또 그런다고 철퇴를 맞은 사실이 뒤집어질 일 또한 아니기에 우선 아내에게 말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알게 될 친.인척들과 친지 등에 대한 입장설명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아내에게 사실고백을 한다는 게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나의 고백을 전해들은 아내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저 멍하니 초점 잃은 시선을 허공에 둔 채 주루룩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까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애써 걱정말라고 아내를 위로해 보았지만 결국 위로가 될 수 없었고 내 자신 걱정부터 앞섰다. 이렇게 나의 철퇴 맞은 사실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내에게 현실로 다가설 수 있었고 점차 친.인척과 친지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수없이 동정과 위로를 받았지만 명퇴라는 철퇴를 맞은 엄연한 현실은 어떤 동정이나 위로도 생각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고 우리 내외에게 있어 뉴-밀레니엄은 희망과 기쁨의 시대가 아닌 절망과 비탄의 시대로 다가섰다.

이제 명퇴한 지도 7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내가 힘들게 살아왔던 과정과 실상을 글로 옮겨 적는다면 한편의 실화소설은 족히 되기도 남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명퇴 이후 지금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다 말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약간의 명퇴 위로금을 쥐어주고서는 명퇴자는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 위로금으로 개인대출을 모두 상환하라는 은행의 물엿치와 대어해 준 노트북 PC를 명퇴자들에게 강매하는 은행의 파렴치한 처사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어떠한 언행도 부질없는 약자의 발버둥에 불과하였을 뿐이었다.

이렇게 내동댕이쳐진 명퇴자들을 반기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얼마 후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을 건수하기 위한 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수행을 위한 처절한 구직노력을 시작하였다. 눈높이를 낮출대로 낮추고 당장 고용되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데나 팬찮다 여기고 정성스레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제발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그 솔하게 이력서를 제출한 곳 어디에서도 나에게 눈길 한번 주는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신문을 뒤적이고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수 없이 뒤지고 또 뒤지면서 계속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다. 정확히 기록하여 두지는 않았지만 200여 곳이 넘을 성 싶다. 제출된 반영합판 사진의 숫자는 그 보다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러기를 1년 6개월, 이젠 재취업에 대한 한 가닥 희망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2. 4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3,000만원의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을 어렵게 지원받아 우유대리점을 차렸다. 새벽 4시에 일

어나 자정까지 정신없이 일해야 하는 고단한 장사였다. 그것은 또 일년에 단 이틀(추석, 설날)만 쉴 수 있는 직업이었고, 명절이고 제사는 물론 주변의 길 흉사를 전혀 챙길 수 없는 희한한 직업이었다. 힘들고 사람도리를 할 수 없는 점이 불만스러웠지만 밥을 먹고 살 수는 있었고 또한 내가 살아있다는 강한 자기암시를 받는 등 백수생활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이 가능하였지만 이것으로는 제대로 된 자식교육도 할 수 없고 나의 노후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시금 재취업을 하리라 마음먹고 마침내 2004.5월 과감히 우유대리점을 폐업하였다.

그런 뒤로 지금까지의 삶은 새로운 역경으로 점철되고 있다.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혼자 그 힘든 일을 하였는데 이제 무슨 일 인들 못하고 또한 겁내라 하는 자신감으로 과감히 우유대리점을 정리하였지만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으려 했던 재취업의 희망과 미련을 또다시 불러일으켜 험난하다 험난한 재취업의 장벽을 뛰어넘으려 무던히 애썼으나 번번이 좌절되었고 그런 만큼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으며 생활고는 점점 더해져만 갔다. 마침내 아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사정에 다다랐고 현재는 아내가 생활전선에서 피땀흘려 손에 쥐는 얼마 안되는 봉급으로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나는 종종 중복장애를 지닌 17살 난 아들이 있다. 혼자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아이기 때문에 나나 아내 둘 중 하나는 꼭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재취업을 위한 나의 노력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아내를 대신해 현재는 내가 아들을 돌보게 됨으로써, 나는 마침내 가장과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의 전형이 되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17살 난 내 아들이 “아빠, 회사는 언제 나가?”라고 이따끔 불쑥 던지는 질문에 아무렇게나 대답하여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것에 안도하는 나의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리고 보듬어줄 수 있으랴.

나는 더 이상 구차하게 나의 명퇴 이후의 생활고를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 사회에는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가 많다는 것에 그저 감사하며,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나갈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그러나 수많은 명퇴자를 양산시켜 이들을 헤어내기 힘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도 이들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눈 한번 깜빡하지 않는 철면피하고 몰염치한 DJ정권과 그 계승자인 MH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갈고 또 갈면서 이글거리는 증오심이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똬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조의행

저는 여러분들 보다 못하고 보잘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단상에 서는 것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발안이 고향인 저는 고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중장비 수리공장에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8년을 오직 기계와 금형일만 해왔습니다.

1997년 초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데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한우물만 관 덕분에 직원이 8명인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로 어음이 부도나고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게 되자 10억 원에 달하는 돈은 연쇄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집과 공장이 날아가고 빚쟁이 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 계속 되자 가족과 있을 수도 없었고,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을 등지고 피신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도로 인한 경제적 파탄보다,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삶마저 포기해야 하는 가정의 파탄에 더 가슴이 찢어졌고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 동안 묵묵히 버텨온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당시 저의 심정이야 그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때에는 갈 곳도 없었고, 머릿속의 잡념, 고통과 피로움을 잊기 위하여 날마다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마음과 정신력 까지도 쇠약해 졌고, 오로지 사는 게 구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10월 어느 날 나는 대낮에 술에 취해서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가는 길 목 옆 휴식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무리의 산악 회원들이 내 곁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들의 정겨운 대화에 이끌려 무작정 회원들을 따라 신들린 사람처럼 백운대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원들은 각자의 배낭 속에 들어있는 점심을 풀어놓고 식사를 즐겁게 먹으면서 옆에 있는 저에게 자꾸만 같이 먹자고 권하기에 나는 마지못해 같이 합석하여 점심을 맛있게 먹게 되었고, 산악회 회원을 따라서 우이동으로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머니에 토르하나 밖에 없는 나에게 하산주로 “막걸리나 한잔 하십시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새 힘을 얻고 그들과 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산을 좋아해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모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말 한마디가 달랐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었고 직업과 사는 것도 묻지 않았으며 산처럼, 어머니처럼 품어주었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등산을 하기 시작 했으며 산악 회원들과 어울리면서 내 인생도 서서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암벽 전문 산악회이다 보니 암벽 오르는 기본기를 익히게 해주고 장비도 구입해 주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덕분에 암벽을 올라 갈수 있었습니다.

“암벽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에서 헤쳐 나아 가야할 세상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남들은 왜 기를 쓰고 산에 오르냐고 반문하지만 거기에 산이 있기에 산에 오른다고 대답하며, 나는 산에서 배운 용기와 강인함으로 한 남자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산을 내려갑니다.

등산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저는 다음날 월요일부터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낮에는 부도 전 거래처 3~4곳을 찾아가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따다가 남들이 퇴근한 뒤 남의 기계를 빌려서 야간에 밤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희망과 자신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낮 시간에 거래처에 납품을 하여 받은 돈으로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한푼 두푼 모아서 5년여 만에 중고선반을 250만원에 구입하여 영등포구 문래동 후배의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남아있던 빚을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망가진 삶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그 이후 번뜩 생겨난 의지가 나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속에서 나의 정신을 온전히 바로 잡아 주었던 가족들의 힘이었고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나를 바로 잡는 것만이 가족들의 희망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내 이런 생각만으로 남들이 바보, 미친 짓 이라 했던 365일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꼬박 1년을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매일 4시간 동안, 여의도 공원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뒤 잠실 선착장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리가 35km 이상 이었는데, 이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바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365일을 미친 듯 달린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친 짓 이라는 걸 통해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작한지 3주일이 안되어서 40cm의 폭설과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 한강물이 퐁퐁 얼어붙어서 강을 뛰어서 건너갈 정도로 두껍게 (50cm 이상)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이 녹아 얼어붙어서 울퉁불퉁한 길을 계속 레이스를 하다 보니 그 충격에 무릎관절 통증이 왔고 전철역 지하계단을 기어서 올라갈 정도로 고통이 심했으며 잇몸까지 약해서 찬 음식을 먹지도 못할 상황까지 갔습니다.

또 발바닥에 굳은살이 박혀 레이스 중 통증이 심해 자꾸 절룩거리면서 레이스를 하다 보니 무릎 뒤쪽 오금부위에 콩알만 하던 물혹이 점점 커져서 탁구공 만하게 커지자 도무지 달리기를 못할 상황까지 갔지만 집에 돌아와 한 달간 냉온 찜질을 하면서까지 마라톤을 계속 했습니다.

마라톤 마지막날, 긴장감으로 잠이 오지 않아 일찍 일어나 마라톤과 함께 시작한 1월 1일부터 쓴 일기를 한 장 한 장 읽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아픔과 시련, 주위의 일가친척, 친구, 가족들의 원망스러운 말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미친놈, 바보 아니냐 그럴 힘이 있으면 처자식 월세 단칸방에서 고생시키지 말고 그 시간에 돈을 벌어 전세라도 가지, 평생 병신되어 노후를 살려고 작정한 정신 나간 사람이냐, 처자식이 평생 병수발 들으라고 저러는 거냐, 백이면 백사람한테 물어보아도 대답은 모두다 부정적인 대답뿐 이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작해서 20여일 지나면서 체력의 한계가 와, 무릎관절이 통통 부어서 계단을 기어 올라가게 되었고 신체 여기저기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났으며, 먹어도 먹어도 체중은 빠지고 잠은 하루 3시간여 밖에 못 자서 항상 체력저하와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겹쳐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항상 졸린 눈이며 어느 누가 보아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 보여 보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큰 죽을병에 걸린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힘들 때 마다 나는 만용 아닌 만용을 부리면서 몸과 마음을 다시 한 번 강인한 정신력으로 담금질 하며 자신을 추슬러 나갔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이길 수 있었지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기후변화, 뜻하지 않은 극한상황, 타인에 의한 돌변하는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 등 모든 힘든 일들을 순간순간 신이 예시라도 하듯이 피해갈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조상님들의 돌봐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내가 이러한 극한 상황들 모두 피하고 365마라톤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꿈만 같은 현실이 도무지 믿겨 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장 한장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내 눈 주위에 환희

와 영광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해냈다는 성취의 눈물인지를 지금껏 겪은 순한 고통과 고뇌와 인내를 한순간 씻어 내듯이 일기장에 쏟아 부으며 나도 모르게 설움과 기쁨에 복받쳐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나한테 용기를 주고 항상 피곤하고 피로워도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싫은 내색 한번 안하고 이 가정과 못난 남편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부인을 생각하니 설움이 더 복받쳐와 곤히 잠든 사랑스런 집사람을 끌어안고 한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오”

이제 365일 마라톤 세계 신기록의 꿈이 현실로 바뀔 시간이 다가왔고 소문을 듣고 MBC TV 취재진이 집에서 출발 2시간 전부터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들을 하나둘 아름다운 한강위에 떠올리면서 레이스를 펼치니 나의 몸이 꼭 허공 위를 달리는 착각이 들 정도로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수부지를 지나 여의도 공원 끝인 지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과 친지 그리고 고향친구, 산악회원 등 200여명의 많은 분들이 마지막 끝인 지점에 나와 나의 역주 모습에 환호와 답례로 성황이었고,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때의 감동과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취재진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나를 환영 나오신 많은 분들까지도 흥분의 도가니를 이루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의 환호와 박수소리 그리고 기자들의 촬영과 인터뷰가 나를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축하객과 기념촬영을 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 중 많은 동호회 회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응원해 준 덕분에 365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돈과 시간이 여의치 않아 기네스북에 아직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닥쳐도 아버지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내 아들과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 못난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1만 2,500km 의 대장정을 완주하면서 얻은 것은 시베리아가 아니라 북극에 가서도 살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 어느 순간 세상 물욕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위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도 배웠습니다.

지난날 사업실패로 노숙자로 전락했던 제가 이제 땃땃이 여러분 앞에 감히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경제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망하지 말고 바보짓 같지만 모든 걸 잊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